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음 6월 21일) 제23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규제로 겪는 어려움 해소방안 모색

전북도-행안부 '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지역 어업인 조업활동 금지 규제문제 등 논의

전북도는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전북도는 주민, 지역기업과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전북 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토론했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송하진 전북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도민, 지역업자, 전문가, 청와대 및 소관 중앙부처 공무원, 전국 시·군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지역발전의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 규제로 인한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40~50년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에서부터, 민꽃게 잡이 어민의 애로사항,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

하는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등록 규정 그리고 국립공원 내 친환경 케도열차 설치 문제 등이 논의됐다. 각 안전에 대해서는 직접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어민, 지역업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직접 나서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고, 교수와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규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을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직접 답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주민의 생업 속 규제에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에 직접 찾아와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청취하니 규제의 문제점과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 주재한 송하진 도지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낡은 옷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개혁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내외 경제가 침체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업 속 불편 해결을 위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가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오른쪽)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운데 왼쪽)를 비롯한 토론회자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후폭풍 '예고'

교육부 동의 여부 이르면 25일 결정 상산고, 내년도 입학정원 선발절차 착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가 이번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의 최종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올해 평가대상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5곳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 된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 동의 여부가 이르면 오는 25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상산고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 등

상산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여야 151명의 의원들은 지난 18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취소 동의 거부 요구서를 보냈다. 이번 상산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있어 우선 쟁점은 기준점수 80점에서 0.39점 부족으로 탈락한 이유다. 타 시도는 70점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통합전형 평가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이는 1기 자사고 평가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가시기에 있어서도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인데 2018년 12월에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지정위원회를 열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이 미달 된 상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다. 교육부장관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29일 발표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상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정 대로 내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했다. 지난 20일 오후 교내 강당에서 '2020

학년도 입학설명회'를 열고 입학정원 360명의 선발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상산고 박상욱 교장은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해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일본 공무출장 등 자제할 것'

장수 동천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 '인정'

가야문화·역사 지역 위상·가치 새로 조명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예고



장수군의 가야유적지인 동천리 고분군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지정이 추진

이제 토기와 백제계 토기가 혼재돼 가야문화 뿐만 아니라 백제와의 역학관계의 발발 수

되고 있어 가야사에서 장수군의 위상과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22일 장수군(군수 장영수)에 따르면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장수군 '장수 동천리 고분군(長水東川里 古墳群)'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을 위해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수 동천리 고분군'은 장수군 장수를 마봉산(해발 723.9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와 가지를 따라 직경 20~30m 내외의 중대형 고총을 포함한 83기가 분포돼 있다.

2003년 처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7년까지 총 6차례의 시굴·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유구 및 유물의 특성을 근거로 5세기 초엽부터 6세기 초엽에 걸쳐 조성된 가야세력의 수장층 무덤군으로 추정된다.

이는 백두대간 서쪽의 가야고분군 중 단일유적으로는 최대 규모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에서 가

있는 중요 유적으로 확인됐다. 조사된 고분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주변에 호석을 두르지 않아 그동안 확인된 영남지방의 가야고분과는 차별성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무덤의 축조기법에 있어서도 생토면을 정지하고 성토를 한 후 이를 뒤 파 모형을 마련해 마한의 분묘 축조기법에 영향을 받은 묘제양식을 두고 있다.

2015년 발굴조사에서는 가야계 고분 최초로 편자(얇발)가 말뚝과 함께 출토됐으며 재갈, 동근고리 자루칼, 은제이식, 성시구 등 대가야와 소가야계 수장층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확인돼 수장층의 무덤임을 알게 해줬다.

장수 동천리 고분군은 그동안 백제권으로 인식됐던 장수지역에 가야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 유적으로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및 교류사를 잘 보여주는 고대 사회상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지정 예고는 장수 동천리 고분군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지정이 추진되고 있어 가야사에서 장수군의 위상과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완산학원 이사 6명 취소 동의... 임원승인취소 청문절차 결과

전북도교육청은 22일 완산학원 이사장과 설립자 부인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임원승인취소 청문절차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청문결과 임원승인취소 대상 이사 10명 중 6명은 취소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변호사에 위임했다. 임원취소 원인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탓에 임원승인자체가 원인무효행위였으며 다만, 법적대응의 여지가 있는 비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를 지켜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8월 1일 취소처분기로 했으며 이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